<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며>

화학산업의 세계화를 추구하자!

한국 화학산업계에 굴절과 희망의 양면을 강요했던 1994년이 저물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새 희망이 엿보이는 1995년의 새 해가 밝아오고 있다.
3년여동안의 공급과잉과 가격폭락, 그리고 쌓이는 적자로 몸살을 앓았던 국내 화학산업계에 있어 1994년은 「암흑의 바다를 헤매던 난파선이 등대를 만난 것」과도 같은, 오랜만에 살 맛을 느낀 한해였을 것이다. 연초부터 본격화돼 4월이후 시행에 들어간 가동률 조정과 가격인상, 4~5월의 집중적인 정기보수와 트러블, 운이 좋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중국의 플랜트 사고와 연이은 미국·유럽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의 폭발과 트러블들, 일본의 움츠림과 가뭄 그리고 세계경기의 예상을 벗어난 호황 등등.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들이 한국 화학산업계에는 유리함을 넘어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 한해였던 것이다. 이에 힘입어 국내 화학기업들은 경영이 활성화되었고 94년말에는 오랜만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흑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94년의 호황과 살 맛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이고, 94년의 경영호전이 3년여동안의 쌓이고 쌓였던 1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단숨에 만회할 만큼 큰 규모도 아니었기에 95년을 맞아 국내 화학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선수를 돌려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즉 마냥 앉아서 흑자타령을 외칠만큼 우리 주변의 여건이 그리 만만치는 않다는 것이다. 폭발했던 그리고 트러블이 발생했던 공장들이 서서히 가동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가동에 들어가 있고, 일본의 가뭄이 95년에도 계속된다는 가정은 전혀 불가능하며, 중국이 계속해서 한국산 화학제품 구매에 열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95년 4/4분기이후에는 세계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지 않는가.
특히 주의를 요하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의 생산능력이 국내수요를 70~100% 넘어서는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고, 2~3년안에 이러한 극심한 공급과잉이 해소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경기가 내리막길을 걷고 미국이나 유럽의 화학제품이 다시 동남아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에는 1994년의 예상치 못했던 호경기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는 점 상기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석유화학의 수출여력이 방대(?)한 만큼 일반화학제품이나 BIO CHEMICAL, 무기화학제품의 홍수유입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이다. 94년에는 그런대로 큰 마찰이 없었고, 액체 가성소다의 반덤핑 제소로 약간의 문제가 야기된 정도였으나 95년이후에는 해외 화학제품 유입이 그정도 선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액체 가성소다의 반덤핑 제소가 「산업무피해」로 최종 판정이 난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WTO가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고, 국가간의 수출입에 있어 무관세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화학제품은 국제상품이라는 점에서 일반화학제품과 무기화학제품은 대량 수입의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국산의 유입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필적해 한국이 중국산 화학제품 수입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WTO체제 아래서 반덤핑이라는 수입장벽은 「종이호랑이」 이상의 역할을 할 수는 없으며, 관세라는 구시대적 보호장치가 아닌 자유경쟁체제 아래서 경쟁력을 갖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결코 국내시장만을 염두에 둔 노력이어서는 안된다는 점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WTO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과제가 그것이다. 농산물만 불리하고, 화학제품은 무관세화의 추세상 유리하다는 단편적인 판단은 필시 크나큰 「오판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만큼 국내 화학산업은 경쟁력이 뒤져있고, 미국·유럽·일본과 중국·동남아의 중간에 끼어 「샌드위치」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의 방향이 모호하고, 국제적 감각이 부족한 것은 물론 R & D가 전무하며 경영원칙이 현실

과 동떨어진 오늘의 한국 화학산업이 시급히 정립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인식하고 반성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국내에 머무는 경영은 더이상 통하지 않으며, 더 넓은 곳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국제화 · 세계화는 한국 화학산업 발전의 요체임에 틀림없다.

<화학저널 1995/1/2>